일 주 문



백범 김구 다례재

원경 공주 마곡사 주지 스님은 6월 26일 마곡사 경내 특설무대서 '백범 김구(원종 스님) 70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



2019 마음등불 개최

신공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스님은 7월 26~28일 내원정사에서 2019 마음등불 '나를 찾는 선-마음이 행복한 나를 찾아봐'를 개최한다.



'붓다의 철학' 특강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는 7월 10~31일 수요일 오후 7시 서울 다보빌딩서 '붓다의 철학' 주제로 대원불교문화대학 특강에 나선다.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

강창일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은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호국불교조계종 무명용사 위령재

총본산 법전사서 6월 24일 봉행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본산 법전사(종정 혜륜)는 6월 24일 제42회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육탄10용사 월남참전 무명용사 합동위령대재를 경내 대강당서 봉행했다. 위령재는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의전단의 집전과 권공 의식, 살풀이, 헌화 및 분향, 추모재헌시 등으로 진행됐다.

(사)한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스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과 미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영령들과 일체 고혼, 애혼들을 위로한다. 이들을 천도해 이고득락토록 하며 나아가 이 겨레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령재를 봉행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혜륜 스님은 이어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유주무주 중생을 제도하며 6.25의 참상을 거울삼아 국민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르고, 나라사랑의 충성심을 일깨워 민족화합의 선구자적 역할과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며 "앞으로 경건하고 알찬 국민적 행사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추모기념사를 했다.

한편 행사에는 종정 혜륜 스님과 대각교단 총재 석가산 스님,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대불조계종 종정 월성 스님, 박희도 前육군참모총장, 최용주 육탄10용사 중앙회장, 윤한우 고엽제경북지부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가야불교문화는 우리 뿌리와 미래"

Interview

가야문화진흥원 2대 이사장 송산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가야문화연구소 역할 확대
시민 위한 콘텐츠 개발 주력
학술연구 및 자료조사 추진

"소외된 역사, 가야와 가야불교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가야 역사는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입니다."

(사)가야문화진흥원 제2대 이사장에 김해 불인사 주지 송산 스님이 취임했다. 지난 6월 21일 김해 휴앤락 메르시앙홀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이사장 송산 스님은 가야와 가야불교 역사를 재조명하고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송산 스님은 "삼국시대 한 축을 담당했던 가야국은 대가야가 멸망하기까지 42년~562년이란 장구한 역사를 가진 국가였다"며 "한국사에 큰 획을 그으며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한 엄연히 존재했던 역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소외된 가야 역사를 이젠 돌아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를 위해 송산 스님은 가야문화진흥원 산하단체인 가야문화연구소와 가야불교연구소를 통해 지속적인 학술대회와 연구 및 복원 사업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송산 스님은 구체적인 방향으로 △가야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인도 아요디아의 역사문화 및 불교 기록 연구 △인도에서 김해까지 전래된 육로와 해상루트 연구 △허황후, 장유화상, 파사석탑 및 연계 사찰 연구 △국내외 가야불교와 문화에 관한 원전 및 기록 수집 △가야문화, 불교문화에 관한 콘텐츠 개발 등을 꼽았다.

송산 스님은 특히 가야문화연구소 역할을 확대해 김해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역사를 소개할 것이라 말했다.

"그동안 학술대회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내용과 주장으로 가야불교를 증명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연구 활동의 중요성을 지켜나가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활동으로 관심을 유도할 것입니다."

송산 스님은 지역 내 사학자를 초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야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UCC 공모전도 열어 참여도를 높일 방안이다.

"지금은 스토리 있고 내실 있는 문화선도 방법이 요구됩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높은 참여율이 보장되는, 모두가 주인 되는 행사로 방향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한 다큐 차마고도처럼 가야불교 전래에 관한 순례길을 다큐 영상으로 담고 싶습니다.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가야 역사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로 삼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송산 스님은 1대 이사장 인해 스님을 비롯해 임원 스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화합하며 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송산 스님은 "초대 이사장인 인해 스님의 열정과 원력이 진흥원을 탄생시키고 초석을 다졌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 묵묵히 진흥원의 밑거름이 되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호국금강사 '호국영령 위령대재'

조계종 군종교구, 포천 소재 육군 5군단 법당서 봉행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 5군단 법당 호국금강사에서 6월 25일 '제36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제5군단 호국영령 위령대재에는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 안준석 5군단장, 정동호 前5군단장의 미망인 구형선 불자, 5군단 호국금강사 주지 혜문 장세훈 법사 등 사부대중 350여 명이 동참했다.

위령대재는 지작사령부 보경 함현준 법사 등 지작사령부 예하 현역 군승 20여 명의 천도의식으로 시작됐으며, 호국금강사 금강보전에서 추념법회가 진행됐다.

위령대재서는 한국전쟁에 전사한 국군과 참전국 장병, 그리고 북한군 전사자의 왕생극락 기원이 이어졌다.



제36회 6.25 전몰장병 호국영령 위령대재서 참석자들이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모습.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16개국 참전영령과 국군영가들께 부처님의 광명이 깃들어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설법의 인연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보경 함현준 법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소중한 목숨을 바쳐 조국과 민족을 지켜내 주신 호국영령들의 거룩하신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숭고한 얼과 뜻을 기리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숭고한 정신을 모든 대중들과 장병들 마음에 영원히 살아숨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군단장 안준석 중장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물질적 풍요로움은 거져 얻어진 것이 아니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갖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호랑이 유격대' 안내판 제막

불암사 · 육사 함께 전사 사관생도 기려



불암사(회주 일면)는 6월 19일 육군사관학교, 남양주시와 함께 사찰 입구 호랑이 유격대 새 안내판을 제막했다. 육군사관학교는 과거 1996년 호랑이 유격대를 기리고자 불암사에 철판으로 된 안내판에 설치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안내판이 낡고 녹이 슬어 6·25 전쟁 69주기를 앞두고 남양주시가 이번에 나무로 된 새 안내판을 새로 제작하게 됐다. **신성민 기자**

"젊은 불자 육성 발원"

대불련 총동문회, 제17회 전국동문대회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는 6월 22~23일 고창 선운사 일대에서 제17회 전국동문대회를 고창 선운사일대에서 개최하고, 젊은 불자 육성 발원문 및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합과 정진으로 하나되는 대불련'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국동문대회는 대불련총동문회 전북지부(지부장 홍수기) 주관으로 5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덕현 기자**

전국 청년불자 통일 기원

대불청, 6월 22~23일 전국불교청년대회 개최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하재길)는 6월 22일부터 1박2일간 파주 임진각에서 창립 99주년 기념 제38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600여 명의 청년불자들이 참가해 '조국통일기원 전국 청년불자 통일선언문'을 결의했다. 또한 올해 불청대상은 지난해 불청대회 주관지구인 울산경남지구의 강인식 회장이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B.TONIC
CAFE & BAKERY

카페 비토닉의
오리지널 블랜딩 커피,
아름다운 부산항과 하나 되다.

카페 비토닉 www.cafebtonic.com T. 051-997-4484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247번길 35, 6층 / 6F, 35, Haeyang-ro 247beon-gil, Yeongdo-gu, Busan